

진로체험중심 교육과정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주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호남권역 워크숍 열려

전북·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 특수학교와 교육청 자유학기제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부터 오늘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호남권 특수학교 업무담당자, 시도교육청,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호남권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전북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역할을 담당한다. 워크숍 첫 날에는 2019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진로체험 지원

산량인 '꿈길' 활용 방법,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자료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청과 학교별로 효율적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깊이있는 협의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시·도교육청별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자유학기제 연계 컨설팅 방안 및 성과를 공유하고, 작년 11

월에 개소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북지사·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전주맞춤훈련센터로 구성된 전북통합훈련센터를 탐방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 평가 방법, 그와 관련하여 선행연구한 교사연구회의 운영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담당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자연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야생동물 특별전 마련

호남권 최초의 대학 자연사박물관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표본 등 전시물 확보를 통해 자연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자연사박물관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전을 마련했다. 오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야생동물, 자연 그대로의 소중한 친구'.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잘못된 보신주의, 밀렵·밀거래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시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시물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먹이, 놀이 등 생태적 특성과 이들에 대한 위협요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등의 의미를 담은 4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동물의 놀이 모습 및 위협에 처한 야생동물 사진 80여 점을 비롯해 독수리, 수달, 매, 수리부엉이, 노루, 고라니(골짜기포 포함) 등 박제표본 31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엔 전시되는 박제는 로드킬이나 유리창 충돌, 자연적 죽음 등으로 인한 폐사체로 제작돼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과 전주동물원, 경남야생동물센터와 전북야생동물센터의 협조로 전시 콘텐츠와 동물박제가 한층 다채로워졌다. 야생동물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는지에서부터 동물의 발자국을 알아보는 공간, 그리고 야생동물이 처한 위협, 법적 보호종 알아보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친숙인 DMZ,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에도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장은 "야생동물이 없는 땅은 인간들도, 다른 생명들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며 "풍부한 콘텐츠와 스토리를 갖춰 교육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을 찾았던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기획전 관람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5~16일 이틀간 남원스위트호텔에서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2019년 학교자치 추진 방향은 ▲주요적인 생활능력을 가진 민주시민 양성 ▲단위학교의 자율성·전문성 존중과 역량강화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조정에 정착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정착을 위해 초·중·고 교(원)장, 교(원)감, 교사, 학부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을 꾸리고 신장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학교자치 일반화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은 교육주체들이 학교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자치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의 컨설팅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교수일(전북대 교수)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방안', 안중만(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사)의 '학교자치 사례 공유' 특강과 함께 그룹토의와 전체토의가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안착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단위학교의 자치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3일 국제로타리 후원 청소년 클럽인 인터랙트 클럽을 창립했다.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멋진 리더로"

이리공고 봉사동아리 '인터랙트 클럽' 창립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욱)는 지난 13일 국제로타리(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다에로타리클럽) 후원 청소년 클럽인 인터랙트 클럽(지도교사 이승래, 이민재)을 창립했다. 인터랙트 클럽은 봉사활동을 매개로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 이해 증진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목표 아래, 헌혈 운동의 전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위한 도서 수집, 각종 중독 예방과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 장소 청소 프로그램 참여, 도서 구입 기금 모금, 불우 청소년이나 요양원 거주자들을 위한 공휴일 파티 주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지금까지 실천해 온 인터랙트의 제반 사업은 리 3670지구 익산다에로타리클럽 소속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아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된다. 이리공고 인터랙트 클럽은 2019학년도 창립(총 33명)을 기점으로 향후 익산다에로타리클럽과 연합하여 독거노인 가정 도배, 장판 작업,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봉사,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진행 봉사, 서동축제 행사 진행 자원 봉사, 전국소년체전 장애인 학생 체전 진행도우미 봉사, 연

탄 나누기 봉사 활동,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하기 봉사 활동 등 월별로 진행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클럽 회장인 3학년 이대현 학생은 "큰 기술자의 꿈은 자력증 취득으로, '봉사 활동은 온정 어린 마음으로 열심히!' 라는 표어 아래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하여 학교와 익산다에로타리클럽,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멋진 리더로, 멋진 인터랙트 클럽으로 성장해가며 세상에 감동을 전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학위수여식 이달 21일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오는 21일 11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의 대상은 교육학사 292명, 교육학석사 52명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뮤즈그레인 무

대가 예정되어 있고,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총장 및 교육대학원장의 졸업증서 및 교원자격증 수여, 총장 및 내빈의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황학당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이번 학위수여식은 부득

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을 빌려 진행된다"고 전하며, "앞으로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될 우리 학생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할 많은 외빈께 누가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레젠테이션 특강 실시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13일 교수들의 수업역량강화를 위해 '수업 단계별 전달력을 높이는 교수법 프레젠테이션'을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수원) 교수법 강사로 활동 중인 신현호 교수(신현호HR 연구소장)를 초청해 강의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제공하고, 교수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해결방식으로 진행했다. 특강에 참여한 교수들은 "강의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공

유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적용해 보고 싶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유아교육과)은 "2019학년도에도 교수에게 효과적인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특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동계 방학중에도 교수들의 자발적인 교수법 연구·학술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교수혁신 특독모임' 프로그램과 같은 교수공동체 활동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